

고흥, 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초청... 고흥 매력에 반하다

거금도·소록도 해양관광·미식 체험으로 양 시군 관광 홍보 강화



고흥군-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 기념촬영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일 여수시 문화관광해설사 초청 팸투어에 이어, 9일에는 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31명을 초청해 고흥의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운영했다.

이번 팸투어는 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고흥의 대표 관광지를 직접 둘러보고 관광 콘텐츠를 체험하며,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흥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우도 레인보우교를 시작으로 녹동항, 소록도, 김일기념체육관, 거금도 해안일주, 거금대교 등을 둘러보며 고흥의 해양·생태·역사 관광자원을 체험했다. 또한 고흥의 권역별 관광코스과 관광정책을 안내받고 지역의 미식자원도 함께 경험하며 관광 경쟁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흥군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인접 지자체와의 관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성군은 9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관리평가(2025년 실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의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재난관리 분야 최고 권위의 평가다.

보성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포함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평가에서 총 7차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코로나19로 평가가 시행되지 않은 2021년과 2024년을 제외하면 평가가 시행된 모든 해에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지속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군은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실전형 대응훈련 ▲재해구호 체계 구축 ▲군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 등 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해 왔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그냥드림사업' 읍면 확대...전국 모범사례

해남군 그냥드림사업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그냥드림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식료품 등 지원이 필요한 개인 이용자에게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식료품을 즉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특히 해남군은 해남기초푸드뱅크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14개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총 15개소에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6개월여간 물품 지원 948건, 상담 480건, 복지서비스 연계 251건에 이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의 읍면 그냥드림코너 운영은 주민 밀착형 모범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는가 하면 보건복지부 워크숍을 통해 읍면형 모델로 사례 발표를 하는 등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인구의 날 국무총리 기관 표창

장흥, 제4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성료

완도군, 재난 관리 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진도군이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 포상'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임신과 출산, 양육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해, 군민이 체감하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진도군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고향사랑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산후 조리비를 확대 지원했으며, 도시형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는 '영유아와 임신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은 최근 정남진체육관에서 4개 농업인 학습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제4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장흥군 농업인학습단체(한국생활개선장흥군연합회 주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생활개선장흥군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장흥군연합회, 한국4-H장흥군본부, 장흥군4-H연합회 등 4개 단체 회원과 내외빈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마음대회는 '새로운 기술, 하나된 열정으로 장흥농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류와 화합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가야금과 색소폰 공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들에 대한 군수 표창과 도·중앙단위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2026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기념촬영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재난 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리면서 완도군의 체계적인 재난 관리 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재난 관리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종합 평가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전국 340개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을 대상으로 책임성과 재난 관리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정책수립 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도군은 ▲재난 안전 예산 운영 적절성 ▲재난 안전 관리 담당자 전문 교육 실적 ▲재난 발생 시 현장 수습 관리 및 복구 추진 역량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 문화 운

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갖췄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특별교부세를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신 군수는 "우수 기관 선정은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안전한 완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관리 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완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 예방과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레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